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10 주년 기념 행사에서 “2022 ECCK 지속가능성 어워드” 수상자 발표

2022년 11월 21일(월), 서울 -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지난 11월 18일 개최된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에서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ECCK 지속가능성 어워드(ECCK Sustainability Awards)”의 수상자들을 발표했다. 주요 인사들과 멤버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시상식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여러 유럽 및 한국 기업들의 노력을 알리고, 앞으로 더 많은 회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행사로 개최되었다.

특히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의장 및 전 유엔사무총장이 참석하여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긴급히 대응해야 하며 전세계적으로 함께 연합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축사를 통해 전하고 수상 기업들에게 직접 시상하였다. “ECCK 지속가능성 어워드”는 아래 3개 부분에서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 그린 스텝 Green Steps: 가장 뛰어난 지속가능한 활동을 보여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에게 시상
- 블루 호라이즌 Blue Horizons: 가장 뛰어난 CO2감소, 공기정화, 청정에너지 활동을 보여준 기업에게 시상
- 골든 스타 Golden Stars: 가장 뛰어난 ESG/다각도의 지속가능성 정책 및 활동을 보여준 기업에게 시상

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은 축사를 통해 “유럽연합과 한국은 각각 2019 과 2020 년에 그린딜(Green Deal)을 공식 발표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활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오늘날 모든 기업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에 동참해야만 한다. 무엇보다 지속가능성 정책의 실현은 민간 부문과의 강력한 협력과 기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에 ECCK 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뛰어난 활동을 보여준 유럽 및 한국 기업 3 곳에 이 상을 수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2022년 “ECCK 지속가능성 어워드” 수상자 명단

그린스텝 어워드: 브라이벨리(BriteBelly)

브라이벨리는(공동 대표: 양영란, 이현재) 2021 년도에 모기업이었던 올가니카에서 스피노프하여, 식물성 기반의 다양한 식품들을 연구 개발 및 생산, 판매하는 푸드테크 스타트업 기업이다. 탄소 제로 및 환경 친화적인 음식을 섭취하고자 하는 트렌드의 확대에 맞춰

“플렉시테리언 flexitarian”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식물성 기반의 맛있는 간편식과 소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열 가지 종류의 대체육을 개발하고, 스무개가 넘는 식물성 간편식을 출시하면서, 출범한지 1년 만에 “그린 리빙” 분야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 성장을 이루고 있다.

블루홀라이즌 어워드: (주)비엔씨티(BNCT)

부산 신항에 위치한 (주)비엔씨티(대표: 최득선)는 국내 세 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컨테이너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2년 운영을 개시한 이래 선도적 글로벌 컨테이너 물류기업으로서 지속가능성을 다각도로 추진해 왔다. 그 예로 Ship-to-Shore 크레인 및 조명 타워의 LED 등 교체, 친환경 장비 교체, 자동화 터미널 운영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터미널 운영 효율화 등이 있다. (주)비엔씨티는 지속가능성의 성공과 운영 효율성 개선을 균형 있게 실현하면서, 항만물류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무엇보다 2040년 NET ZERO를 목표로 하여, 2030년 온실가스 감축 중간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였고, 경유와 전기 사용 감소 등을 포함한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골든스타 어워드: 이케아 코리아(IKEA)

이케아는 2012년 선보인 ‘사람과 지구에 친화적인 전략(People and Planet Positive)’ 아래 지역사회와 지구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이케아 코리아(대표 겸 지속가능성책임자: 프레드릭 요한손)는 매장 내 에너지 및 폐기물 감축, 가구 배송 전기차 도입 확대, 자원순환을 위한 ‘바이백 서비스’ 론칭,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음식 제공, 지역 사회의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한 NGO와의 협업 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명확한 비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한 혁신과 투자를 지속하는 동시에 다양한 파트너와 함께 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CCK 지속가능성 어워드(Sustainability Awards) 소개

유럽연합과 한국은 각각 2019년과 2020년에 그린딜(Green Deal)을 공식 발표하였다. 정부의 지속가능성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업과의 협력 그리고 기업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약 400개 기업을 대변하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또한 2021년부터 지속가능성을 주요 분야로 선정하고 관련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22년 'ECCK 지속가능성 어워드'를 신설하고 유럽 및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활동에 대한 시상을 하고 있다. 2022년 처음으로 시행된 'ECCK 지속가능성 어워드'는 7월부터 10월 중순까지 기업들의 참여 신청을 받았으며, 총 36개 회사가 참여하였다. 그 가운데 아래의 세 개 분야에 대한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하고 시상하였다.

- 그린 스텝 Green Steps: 가장 뛰어난 지속가능한 활동을 보여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에게 시상
- 블루 호라이즌 Blue Horizons: 가장 뛰어난 CO2감소, 공기정화, 청정에너지 활동을 보여준 기업에게 시상
- 골든 스타 Golden Stars: 가장 뛰어난 ESG/다각도의 지속가능성 정책 및 활동을 보여준 기업에게 시상

(끝)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에 대하여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계 기업들을 대변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된 협회이다. 회원사들에게 한국의 비즈니스 규제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규제 기관들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등 한국에서의 비즈니스에 있어 유럽기업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다. 현재 약 400여개의 유럽 및 국내외 기업들을 회원사를 대표하고 있으며, 약 5만여명의 직원들이 소속되어 있다.